





## 격주 동향

GPS 내비게이션 시장 동향 ..... 3p

한일 조정밀 한국형 GPS 개발 논의중 ..... 5p

서초구, 실내 위치정보 안내 앱 운영 ..... 7p

주요 언론 동향 ..... 9p



# GPS 내비게이션 시장 동향

##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기존 GPS 내비게이션 대체할 것으로 전망

### ▶ 기존 GPS 내비게이션 제조사 다양한 시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카운터포인트 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 데이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2023년에 12억 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치는 2022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전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GPS 내비게이션 대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하게 되었고 GPS 내비게이션은 중복된 장치로 사용자의 관심을 잃음
- 기존 경로 안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던 TomTom, Mio 및 Garmin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2등으로 밀려났으며, 적어도 두 개의 회사는 GPS 내비게이션을 벗어나 새로운 제품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음
  - **(Mio)** 오랫동안 GPS 내비게이션 세계의 선두 주자로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가장 최근 출시한 제품은 이미 5년이 되었으며, 회사는 대시 카메라를 포함한 다른 제품 범주에 더 전념하고 있음
  - **(TomTom)**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과의 전쟁에서 비공식적 패배를 인정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을 출시하여 사용자 기반을 늘리기 위해 지도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음
    - TomTom은 최근 미국에서 GPS 내비게이션 판매를 중단하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제공 중이며 제품은 여전히 유럽에서 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타지역에서도 GPS 내비게이션 판매를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Garmin)** 지난 12개월 동안 새로운 GPS 내비게이션을 출시한 유일한 회사로 2023년 4월에 Garmin Drive 53 GPS 내비게이션을 출시하였으며, 스마트폰과 구식 내비게이션을 연결해 차세대 기능을 활용하는 매력적인 조합을 구축함
    - 구식 GPS 내비게이션에 스마트폰 연결을 구축해 교통 정보 및 실시간 보고서 등 기능을 추가해 내비게이션 장치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시도이지만 장기 재무적 관점에서 이 전략이 타당한지는 불분명함

- GPS 내비게이션은 이미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중복 장치가 되었지만 트럭과 같이 차량 크기와 화물 크기에 따라 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특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음
  - 트럭 내비게이션은 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만 경로 안내하며 트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주차 위치 등 트럭에 적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GPS 내비게이션의 단점은 구글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와 영구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과 달리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 소프트웨어와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힘든 과정으로 느껴짐
  - Garmin을 포함한 일부 내비게이션 장치 제조업체는 Bluetooth를 통해 정보를 GPS 장치에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여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설정이 복잡하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서 자체적으로 경로 안내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음
  - 결국 대부분의 운전자는 스마트폰이 이미 대시보드에 있는데 대시보드에 장치를 하나 더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차에 있는 동안 스마트폰을 연결해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함으로 구식 GPS 내비게이션의 활용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임

#### Reference

- autoevolution : "Game Over: GPS Navigators Quietly Admit Defeat in Battle Versus Mobile Navigation Apps", 2024. 1. 6.

# 한·일, 초정밀 한국형 GPS 개발 협력 논의 중

## | KPS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 계획

### ▶ 과학계, KPS 운용을 위해 주변국들과 협의 및 조정 필요성 제기

- 정부가 한국형 GPS로 불리는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위해 일본과 협력각서(MOC) 체결 등 협력 방안을 일본 측과 비공개 논의 중인 것으로 지난 11일 확인됨
- 외교가와 과학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측 요청으로 KPS 개발 일환의 MOC 관련 문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미 국무부, 상무부, 우주군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KPS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한미 간 KPS 관련 협업이 발표된 적은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위성항법분야 협업 논의 사실은 처음 확인됨
- 일본은 미국과 함께 KPS 관련 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KPS 사업을 위해서는 EU,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도 협의 및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과학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그동안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대면 협의를 우리 측과 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언급

그림 1.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상상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PS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cm단위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도 36,000km에 항법 인공위성 8기를 띄우는 사업이며,
  - 과기정통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은 KPS 사업 일환으로 2027년 경사궤도위성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총 3기의 정지궤도위성과 5기의 경사궤도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임
  - KPS는 내비게이션 정확도를 높여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군사용 드론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KPS를 한반도 지역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 운용국이 사용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들 간 공존성·상호 운용성 등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단계에서 신호·주파수·서비스·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 당국자는 “스마트폰 시장 진출 등을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 운용국들과 협의가 필요하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일본을 제외한 각국과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과의 협의 진전 여부도 얼마든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 Reference

- 머니투데이 : “'1cm 단위 초정밀' 한국형 GPS 개발에 日 협력 논의”, 2023.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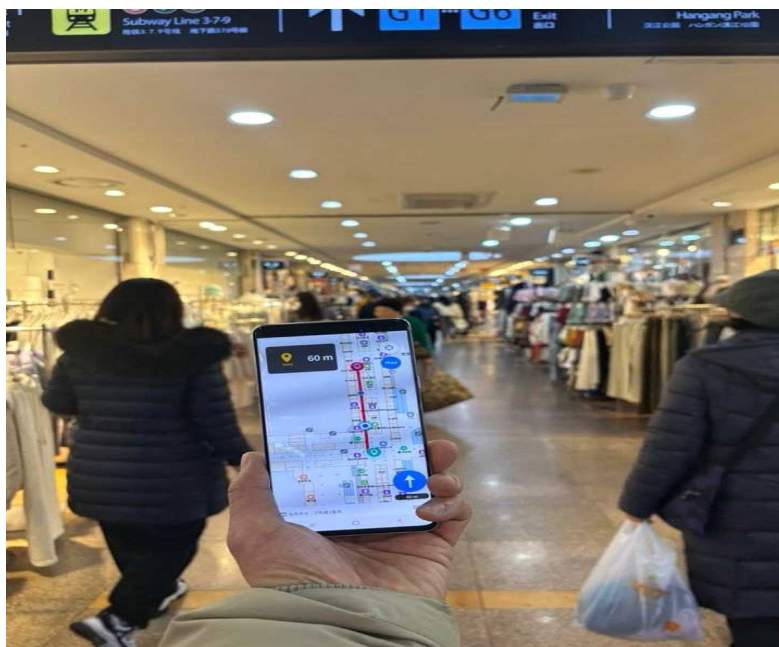
## 서초구, 실내 위치정보 안내 앱 운영

■ '고터맵'을 이용해 복잡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도 목적지에 쉽게 도착

▶ 빠른 길 안내, 증강현실 모드, 카테고리 검색 등 다양한 기능 지원

-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복잡한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내비게이션인 '고터맵'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힘
- 고터맵은 상점마다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부여해 공간 데이터 정보를 구축하고, 앱으로 내비게이션을 구현해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모델이며, 서비스 대상지는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고투몰 일대로 총 31,566㎡임
- 고투몰은 630여개의 상점이 복잡한 실내 구조에 빼곡하게 입점하여 방문객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초구는 고터맵 추진 과정에서 주소를 알기 쉽게 세분화함
- 구는 기존 1개 도로명으로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 도로와 상점에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부여했고,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비치했으며,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정보 전달 장치 150여 개를 곳곳에 설치함

그림 2. 고터맵



출처 : 서초구

- 고터맵은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투몰의 실내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기능은 빠른 길 안내, 길 안내, 증강현실(AR)모드, 카테고리 검색 등이 있음
  - **(빠른 길 안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와 화장실을 안내해 비상, 응급 상황시 신속한 이동을 도움
  - **(길 안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하면 그 장소까지 이동경로를 안내하며, 음성과 함께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과 남은 거리를 알려줌
  - **(증강현실모드)** 앱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 상점을 인식하면 상점 정보가 표시됨
  - **(카테고리 검색)** 출구, 화장실, 음식점, 쇼핑, 편의시설 등을 분류하여 원하는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영문 안내, 경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주행, 주변 날씨 정보 등을 제공함
- 서초구는 23년 2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보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 시범사업의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 분야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간 관련 용역을 진행함
  - 구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 후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소방·경찰에 제공할 계획임
  - 구는 고터맵이 고속터미널 방문객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아이폰용 서비스는 추후 출시 예정 중에 있음
-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고속터미널 일대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실내 공간정보 구축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언급

## Reference

- 뉴시스 : "복잡한 '고투몰' 걱정 없어요...서초구, '고터맵' 출시", 2024. 1. 10.





## 주요 언론 동향

- ▶ 방통위, 위치정보 산업 확대 예산 19.7억 원 편성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27>
- ▶ 소프트베리, CES 2024서 전기차 최적 충전경로 추천 서비스 공개  
-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85460>
- ▶ [CES 2024] HD현대, 미래형 무인 AI 건설기계 공개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109500323>
- ▶ [기후는 말한다] 산업단지에 뜬 '중금속 단속반'...고농도 미세먼지 잡아라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9199&ref=A>
- ▶ 서울 청계천 지하관로 안전진단 '수중드론'으로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9499>
- ▶ 파주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10010005909>
- ▶ 충남소방본부, 신고 중 끊긴 전화 추적해 생명 살려  
-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707>
- ▶ 남동구, 홈페이지 '스마트 위치정보지도' 서비스 시범운영  
-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9203>
- ▶ 오산시, 비상소화장치·우체통 등 6종 153개에 사물주소 부여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556>
- ▶ 송파구, 시각장애인 위한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 시범사업 마쳐  
-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193.html](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5193.html)



발행일 2024년 1월 16일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본부 이용자보호단 위치정보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